

폭넓은 시험 연구활동 적극 전개

1. 머리말

한국화재보험협회부설 방재시험소가 개소된 지 벌써 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우선 대한건축학회 회장으로서 경하를 올리는 바입니다.

공익단체인 한국화재보험협회 산하에 방재시험소를 설치하였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도 우리사회에 큰 공헌을 하였으며 보람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최신시험기구들을 많이 갖추고 열성적인 연구원들의 끊임없는 연구활동을 통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노력한 객관적인 시험의 결과는 방재기술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방재시험소가 앞으로 방재에 대한 예방과 화재후의 신속한 진화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의 제시와 커다란 연구의 성과있기를 기대합니다.

방재시험소 개소 3주년을 맞



박 윤 성
(대한건축학회 회장)

이하에 방재시험소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라는 요청에 뜻을 들었습니다마는 본인의 주관적이고도 개인적인 의견과 생각을 일단은 말씀올리는 것이 열심히 일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되지않을까 생각됩니다.

여기에서 본인은 우리나라에서의 방재시험소의 위치와 역할에 대하여 알고 있는 단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학

계와 방재시험소와의 협력관계에 대해 본인 나름대로의 생각을 말씀 올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차원의 인정제도에 대하여도 방재와 연관된 부분에 대하여 생각을 하여 보고자 합니다.

2. 방재시험소의 위치와 역할

방재시험소는 엄연히 한국화재보험협회산하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방재에 대한 학문발전을 위한 연구의 개발보다는 화보협회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도와주는 협력연구기관이라는 기능이 주업무임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일입니다. 현재까지 화보협회에서 수행하여 왔던 안전점검업무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일을 이끌어가면서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방재시험소를 두어 그 역할을 높여왔으리라 생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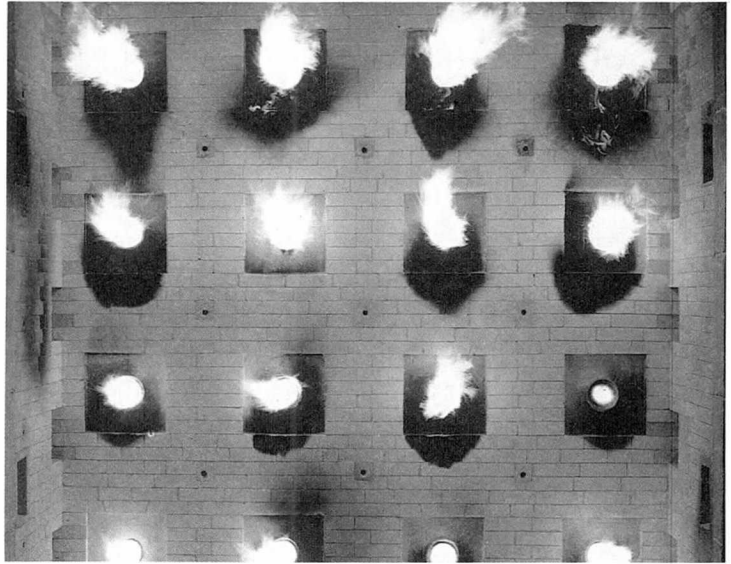
물론 방재시험소의 역할이 보험업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므로 시험소가 없던 과거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이고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시험을 통한 연구결과를 보험업무에 원활하게 활용하여 성과를 올려야 함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험기구를 구비한 방재시험소에서 건축의 방·내화에 대한 시험과 소화설비에 대한 많은 시험을 통하여 그 결과들을 연구·발표하고 홍보를 하여서 일선에서 활약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건축방재에 대한 예방과 진화를 위한 기술적인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하면 이것이 또한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술적인 연구결과들은 보험사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방재와 관련되는 산업체에서도 큰 도움이 되어 생산능력이 강화되고 산업체 자신들의 기술수준도 향상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서는 국제적인 경쟁능력도 키워가리라 생각됩니다.

방재시험소에서는 화재가 일어났을 때 건축에 관한 방·내화분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시험연구와 병행하여 현장조사연구에도 충실을 기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정보들은 방재연구의 방향 설정에 대한 길잡이가 될 수 있는 필요성을 갖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까닭입니다.

방재에 대한 시험결과와 조사연구결과를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정리를 하여서 필요한 때 수시로 방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마련하는 일도 필요하겠



습니다. 즉 방재기술정보의 관리를 원활하게 하면 많은 분들에게 효과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재에 대한 기술내용을 보다 빠르게 제공하여 줄 수 있는 역할을 방재시험소에서 봉사적으로 시행해가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같이 방재에 대한 의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개인 개인에게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확산이 되어서, 국가적인 견지에서도 효과적인 방재대책의 마련에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합니다.

3. 방재시험소의 연구활동

대한건축학회에서는 방재시험소가 개소되기 전인 1945년 9월부터 이미 방재부분에 대한 연구활동이 활발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분야에 뜻을 가진 몇몇 교수들에 의하여 나름대로 끊임없이 연구를 계속하여 왔습니다.

대한건축학회에서도 연구활동의 일환으로서 건축방재연구위원회를 신설한 것이 1972년 4월이었습니다.

연구논문발표를 보면 1972년 이전에도 3편의 방재에 관한 논문이 건축학회지에 발표가 되었고, 1972년 방재위원회가 신설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연구논문의 발표와 방재에 대한 새소식들을 게재하여 왔습니다.

특히 건설부와 국립건설시험소에서 주관하는 방재에 관한 연구보고서 작성에도 우리 건축학회의 여러교수들이 참여하시고 보고서작성에도 노력을 기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방재재료 및 방·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연구: 1981년 12월
-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 1987년 1월
- 방·내화시험기준에 관한 연구: 1988년 12월

여기에서 방재재료 및 방·내화구조의 성능기준연구는 선진여러나라의 방화시스템을 비교 분석을 하여 각 나라의 성능기준에 대한 특징을 내용에 담고, 여

기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되는 것을 축출한 방화재료와 방·내화구조의 성능기준은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정부차원에서 각종 방화재료와 방·내화구조에 대한 성능인정제도를 도입하여 성능인정을 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능인정을 하여 줄 때는 반드시 합리적이고도 철저한 시험을 통하여 그 결과를 얻고난 후에 충분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의 충분한 견해를 합쳐서 인정에 응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인정의 여부는 마지막으로 방재분야에 권위를 가진 위원들에 의한 정부차원의 판정으로 결정짓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와 체제를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골자의 내용인 것입니다.

건축물의 내진구조 및 방재기준에 관한 연구도 건축물의 방재기준연구에서 현재 건축물이 대형화되어가고 있고 고층화되어가는 추세에 있는 바, 방재에 대한 세부적인 심도있는 분석을 통한 연구를 전개하고, 방화시설의 설계와 방화성능에 대한 깊은 연구와 방재기준과 제도에 대한 연구, 그리고 피난계획과 인명의 안전에 관한 연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방재계획수립의 필요성과 현행 방재에 대한 법규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의 문제점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방·내화시험기준에 관한 연구는 건설부에서 고시된 내화구조성능인정제도를 시행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운용되게 하기 위하여 선진 여러나라의 규정과 이에 따르는 내화구조의 시험방법의 비교와 검토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기준안과 현행기준의 보완에 대한 방안의 제시를 하고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내화구조에 대한 사후관리문제에 관한 지침도 생각하여 본 것이 본연구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방재분야에 대한 독립적인 학회를 오랜동안 희망하여 오던중 한국화재학회를 1987년 6월에 창립하여 9개의 연구위원회를 두고 본격적인 방재에 관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재를 위한 한국화재학회의 창설은 역사적인 사실로서 방재관계의 많은 전문인들이 모인 연구활동에 대하여 크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한국화재학회는 1987년 10월에 학회지의 창간호를 마련하였고 국제교류를 통한 학술발표회도 가졌었습니다. 앞으로 방재분야에 대한 연구활동의 적극화를 위하여는 전문고급인력이 많이 배출되어야함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는 범위 내에서 살펴보면 외국박사학위 소지자가 1명이고 국내박사학위 소지자가 2명, 그리고 국내석사학위 소지자는 다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현재 외국대학과 국내대학에서 방재분야에서 학위취득을 위하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건축방재에 대한 연구희망자는 점점 늘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4. 맺는말

본인은 여기서 방재시험소의 역할과 그 위치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재시험소가 한국화재보험협회산하에 있기 때문에 보험업무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겠습니까만,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시험업무설비를 갖추고 있는 곳이 국립건설시험소 이외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좀더 연구의 폭을 넓혀서 사회적 봉사라는 측면에서 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중임을 맡아야 할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방재에 대한 사회적인 지도역할을 자임하여 주심사는 부탁의 말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인력을 가지고 있는 방재시험소가 앞으로는 방재분야의 많은 연구활동을 주도해가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 대한건축학회에서도 건축방재에 대한 많은 연구업적을 쌓아 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구활동을 지속시켜 나갈 것입니다.

더욱이 방재시험소에서는 방·내화에 대한 인정을 위한 시험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있으니 앞으로의 방재시험소의 기능은 점점 확대되어갈 것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방재시험소는 현재의 기능에만 만족하지 말고 방재활동의 주축이 될 수 있는 연구소로서의 태동을 기대합니다. ☉